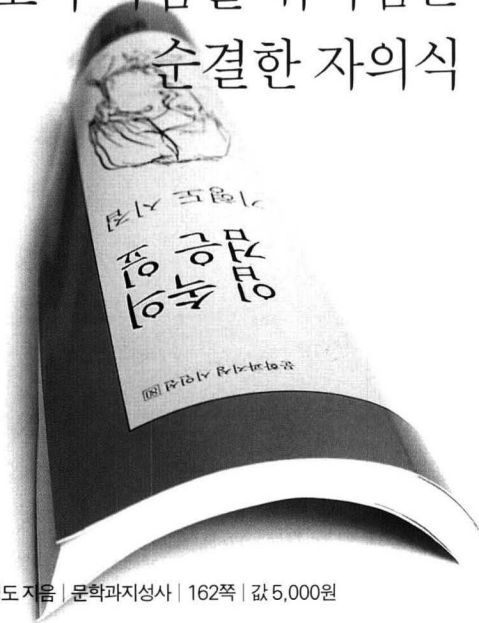


공포와 죽음을 뛰어넘는 순결한 자의식



《입 속의 검은 잎》 기형도 저음 | 문학과지성사 | 162쪽 | 값 5,000원

1989년 3월, 종로의 한 심야영화관에서 첫 시집 출간을 준비중이던 한 젊은 시인이 뇌졸중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다. 그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는 시작 노트와 꼼꼼하게 밑줄을 쳐가며 읽었던 몇 권의 책, 이국에서 온 편지, 소화제 알약 등이 발견된다. 가방 주인의 이름은 기형도. 다음날 신문 부고란에 짧게 소개된 이 돌연한 죽음은 우리 시단에 특기할 만한 어떤 사건을 촉발시킨다. 평소 그의 시를 눈여겨보던 ‘문학과지성’의 리더 김현은 그의 시집을 묶고 그 시집에 〈입속의 검은 잎〉이라는 제목을 붙인다. 그리고 직접 해설을 써, “현존하는 부재, 부재하는 현존”이라는 말로 젊은 시인이 남기고 간 시 정신의 위의(威儀)를 기린다.

기형도. 그만큼 짧은 기간에 많이 읽히고 인구에 회자된 시인도 드물 듯싶다. 모든 영광이 그의 사후에 주어졌다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말이다. 그는 단 한 권의 시집을 남겼고 이 시집은 ‘소설의 시대’라고 불렸던 1990년대를 너그러게 주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시적 체험’을 안긴다.

1989년 5월 30일 처음 출간된 《입 속의 검은 잎》은 초판 24쇄 발행을 거쳐 현재 재판 32쇄를 찍고 있다. 지금까지 판매된 누적부수는 대략 30만 부에 육박한다.

지금도 매달 1,000부씩 팔려나가고 있는 룡셀러다. 이는 본격문학에 속하는 시집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기록이

다. 동호인들의 천국 온라인상에도 기형도를 기리는 팬 사이트가 수십 개 생겼다. 문학과지성사의 김수영 편집장은 이 시집이 꾸준히 읽히는 이유에 대해, “독자들이 그의 시를 통해 죽음의 그림자 뒤에 놓여 있는 생명에의 의지와 비관적 세계관 뒤에 숨은 진실에의 욕망, 그리고 고통스런 운명의 자각 뒤에 놓인 자유에의 욕구 등을 발견하면서 위안을 얻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집의 인기에 힘입어 문학과지성사는 1999년 산문과 미발표 소설들을 모아 기형도 전집을 펴내기에 이른다.

그의 시는 서정적이면서 웅혼하고 젊은 영혼의 내밀한 아픔과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의 대학 선배인 윤동주의 순결한 지사주의와 곧잘 비견되고는 한다. 그는 윤동주처럼 곳곳에서 순결한 자의식이 빛나는 첨예한 성찰과 긴장의 시학을 발현시킨다. 김현은 그의 시에 ‘그로테스크 리얼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다음의 시를 보면 공포의 분위기 속에 기형도만의 독특한 서정성이 깃들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 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겨울환화1>

망자의 전설은 그의 지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법. 그에 대한 일화는 소설가 성석제와 원재훈에 의해 많이 전해졌다. 원재훈은 “서울의 우울을 노래한 보들레르”로 기형도를 기억한다. 그의 또 다른 절친한 문우 성석제는 기형도의 시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그는 그의 詩 속의 세계를 뒤덮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고... 죽음에 삼투되지 않은, 그리고 죽음에 의하여 쫓겨나지 않는 삶을 세워보려는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기형도에게 시인이라는 그 비극적인 작위를 부여한 작품이 바로 〈안개〉라는 시였다. **★**

김도연 기자